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4호 [투게 제2259호]

주제 103
(2014). 1

25
토요일

음력 12. 25

6. 15 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통일을 앞당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마두산혁명전적지를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마두산혁명전적지를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구호문헌보존교양실을 돌아보시는데 이어 야외에 있는 구호문헌들을 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두산혁명전적지가 자리잡고있는 안주지구는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작전지역이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여기에 비밀근거지를 정하신 한가지 사실만 놓고보아도 수령님은 천 리해안의 예지를 지니신 절세의 위인이

시였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두산혁명전적지에는 조국해방의 역사적업무를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새시대를 개척한 우리 인민의 불굴의 투쟁정신이 뜨겁게 깃들어있다고 지적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 위하여》 등의 구호

문헌을 보시고 항일혁명선렬들의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품모의 빛나는 귀감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장구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역센 뿌리로 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당이 혁명전통교양을 즐기게 벌러왔기때문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력사에 류례없는 만년시련을 과감히 이겨내고 혁명의 한

길을 곳곳이 걸어올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혁명의 대가 바뀔수록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혁명전통을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며 조선휘명을 완수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와 결심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두산혁명전적지의 종업원들이 자기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코

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혁명전적지들은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고 만들수도 없는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 당원들과 근로자들, 군인들과 청소년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는 중요한 교양거점이라고 하시면서 전적지들의 관리운영과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본사기자

《김정은저작집》출판기념모임 일본에서 진행

《김정은저작집》출판기념모임이 12일 일본 오기나와에서 진행되었다.

일본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회, 주제사상연구회 전국련락회,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 일본위원회와 주제사상국제연구소 그리고 오기나와의 인사들, 각지의 주제사상선봉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일본 주제사상연구회 전국련락회 회장인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오기나와련락회 대표 사쿠가와 세이이치는 오기나와현민들속에서 주제사상연구보급사

업을 활발히 벌려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오기나와련락회 부대표 다이카 게이찌는 현 일본정부의 대미추종이 커다란 문제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자주를 위한 오기나와의 투쟁은 일본에서 자주를 확립하는 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회 고문 무사고지 김히메는 《김정은저작집》의 출판에 대하여 언급하고 제국주의, 《세계화》를 철폐히 경계할것을 호소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간사이련락회 공동대표 이께베 유키에는 주제사상은 인간의 본질적특성을 명백히 밝혀주고있다. 일본이 자주의 길로 나아가도록 주제사상연구보급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가겠다고 말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간도련락회 공동대표 하나와 후지오는 오기나와에서 《김정은저작집》출판기념모임이 진행되는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인류자주사업실현을 촉진시키는 주제사상을 더욱 광범히 연구보급해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본사기자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실천에 구현해나가자

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글 발표

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이 14일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같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될데 대하여 가르치시었다고 지적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조국의 운명, 민족의 운명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간직하고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와 강성변영, 후손만대의 행복을 마련하기 위한 애국헌신의 길에서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실천으로 보여주시는 애국주의라고 강조하였다.

동서고금의 력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에 애국적공헌을 한 수많은 영웅들과 애국자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김정일국방위원장과 같이 숭고한 애국리념

과 활동으로 력사에 전무후무한 애국주의, 사회주의애국주의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위대한 애국자는 아직 모른다고 격찬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의 야말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라고 하면서 같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사회주의조국과 민족에 대한 가장 뜨겁고 밀렬한 사랑이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

과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사상정신적양식이며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사람에게 용기를 안겨주고 투쟁의 활력을 부여하는 힘있는 원동력으로서 된다.

같은 해내외의 온 겨레가 김정일애국주의를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그것을 실천에 구현해나가며 조국통일을 이룩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는데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남조선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 각계층 인민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세기와 년대를 넘어 지속되고있는 국도분열의 력사는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가져다주고있다.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있는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조 하여 더해만지고있는 민족의 막대한 희생과 소모는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수 없는 험악한 지경에 이르고있다.

나라의 해방과 함께 시작된 우리 민족의 이 비극적인 치욕의 력사는 전적으로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제때에 바로잡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분열의 아픔을 가져다지 못한 우리 겨레모두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특히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절대화하며 겨레와 민족의 소원을 외면한 채 대결만을 주도하여온 당국자들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다.

더이상 그대로 수수방관할수 없는 이 엄연한 현실앞에서 국도량단과 민족분열의 력사에 끝장을 내려는 단호한 결심을 굳힌 우리 최고수뇌부는 올해 신년사에서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도를 내외에 천명하였다.

이에 화답하여 지난 1월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가 남조선당국에 보낸 뜨거운 호소가 바로 북남관계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중대제안이다.

우리의 중대제안은 불미스러운 모든 과거를 불문에 붙이고 서로의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변의 의지를 그대로 담고있다.

이 제안에는 또한 나라의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가 차면치고있다. 우리가 오늘까지 높은 인내와 야량을 가지고 중대제안에 대한 긍정적응호응을 기대하며 남조선당국의 움직임을 주시해온것도 바로 그때문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중대제안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운당치 못한 태도와 거부적인 립장은 지금도 구태의연하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1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특명에 따

라 남조선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 각계층 인민들에게 다시금 이 공개서한을 보낸다.

북남관계를 개선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이 문제를 대하는 립장과 자세를 바로가지는것이다.

북남관계를 개선하는 문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통일의 지름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첫 출발점이다.

따라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가 누구든, 어떤 정견과 신앙을 가지고있는 언젠나 민족중시, 민족우선의 립장에서 백사만사를 덜어놓고 성심과 성의를 다하여 성사시켜야 한다.

이로부터 우리는 중대제안에 쉬임없이 진행되어온 남조선당국의 배아살포는 물론 북남합의를 어기고 재개한 대북심리전방중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서로가 상대를 자극하고 비방중상하는 백해무익한 행위를 전면금지할데 대하여 제안하였을뿐이다. 한것은 지난날을 두고 말기발부하는 데 집착한다면 또 다른 반복질서와 대결을 낳는 악순환이 거듭될수 있다는 진경에서였다.

투쟁도 펼쳐보지 않고 불것이 없다는 식으로 좋은 책을 내건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남조선당국은 관계개선과 관련한 우리의 제안을 깊이 새겨보지도 않고 함부로 상대를 걸고들치 말아야 하며 남조선의 모든 정당들과 사회단체들, 각계층 인민들은 겨레의 뜨거운 호소에 목소리를 합쳐야 한다.

우리는 이미 일방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자극이나 비방중상을 전면금지하는 길에 들어섰다. 관계개선의 분위기부터 조성하여야 민족의 단합과 화합이 도모되고 거기에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자주통일을 앞당겨오는 참된 길이 있다.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불신과 대결을 낳는 가장 큰 장애물인 군사적적대행위를 전면금지하는 결단을 내리는것이다.

북남관계를 개선하는데서는 분위기 조성도 요구되지만 그것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인 군사적적대행위를 근절하는것이 더없이 중요하다. 그것은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

한 정세가 전쟁정경으로 치닫고있는 조선반도의 현 상황에서 크지 않은 우발적인 군사적충돌도 순간에 전면전쟁으로 번져질수 있기때문이다.

우리의 중대제안에 밝혀져있는바와 같이 이제 이 땅에서 전면전쟁이 터지면 어부지리를 얻을것은 우리의 통일을 원치 않는 세력들뿐이다.

그대신 우리 민족은 사람도, 산천도, 이룩해놓은 모든 재부도 다 잃는 재난만 당하게 될것이다.

자극과 위협하는 군사적적대행위의 전면금지이다.

우리의 중대제안은 결코 남조선당국이 떠드는것과 같은 《위장평화공세》도, 동족을 대상으로 벌리는 《선전심리전》도 아니며 그 무슨 새로운 《도발》을 전제로 한 구실이나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배설어진 여론이나 바로잡기 위해 내놓은 《명분쌓기》는 더욱 아니다.

또한 있을수도 없고 오지도 않을 그 무슨 《금번사태》나 《체제의 불안정》을 수습하기 위해 내놓은 정략적인 조치는 더더욱 아니다.

우리가 관계개선의 일환으로 즉시 중지할것을 제안한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칠두칠미 《방어적》이며 《넉넉적》이라는 미명하에 벌여질 위험천만한 북침전쟁연습이다.

아마 이 연습에 참가한 침략군부대들에 할당된 타격목표들이 공화국북반부의 중요대상물들이고 이 연습체안에서 계획된 대규모적인 연합상륙작전이 평양강점을 노리게 되어있다는 엄연한 하나의 사실만 놓고서도 남조선당국은 할 말이 없게 될것이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에 일반군사훈련을 중지하라고 제안하지 않았다.

우리의 주장은 의외와 야합하여 동족을 겨냥하고 벌리는 침략전쟁연습을 중지하라는것이다.

그 연습마저 미국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크고 미국과의 《합동》과 《협동》이 버릴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여 정하고싶다면 우리 나라 령토나 령해, 령공을 벗어난 한적한 곳이나 미국에 건너가 하라고 하였다.

남조선당국은 비록 때늦은감이 있지만 미국이라는 존재는 이 땅에 평

화대신 전쟁을 몰아오는 침략자이고 민족이 바라는 통일대신 영구분열과 지배를 노리는 파렴치한 강점자이며 수천만 우리 겨레에게 천추만대를 두고 씻을수 없는 피맺힌 한을 남긴 불구대천의 원수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숨미사태와 공미굴중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원수를 가려보지 못하는것은 둘째치고 동족의 진정도, 뜨겁게 내민 화해의 손길도 헤아리지 못하게 되는 법이다.

우리에 대하여 말한다면 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외세를 끌어들이는 민족의 안전과 평화보장에 저어를 주는 군사적행동을 벌리는 일이 없게 될것이다.

우리는 벌써 서해 5개섬 열섬수역을 포함한 최전연의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모든 군사적적대행위까지 전면금지하는 실천적인 조치들을 먼저 취하기로 하였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진경이 담긴 중대제안을 무렵고도 의심하거나 혼돈하지 말아야 하며 경솔하게 거부해 나서지 말아야 한다.

거부하면 할수록 북남관계개선을 갈망하는 온 겨레의 거세지는 항거를 막지 못하게 될것이다.

남조선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침략전쟁연습을 비롯하여 군사적인 온갖 적대행위를 전면금지하는것으로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가자는 우리의 정당한 호소에 한사람같이 호응해나서야 한다.

군사적적대행위라는 기본장애물을 전면적으로 제거할 때 진정한 북남관계개선이 이루어지게 되며 바로 여기에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 기본방도가 있다.

북남관계개선은 또한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이 땅에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를 함께 취해나갈 때 더욱 확고히 실현되게 될것이다.

조선반도의 당면한 핵재난은 판도와 오기나와에서, 서부태평양수역과

미국본토에서 아무런 제약도 받지없이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매달아 늘어드는 미국의 지상, 해상, 공중핵타격수단에 의하여 초래되게 되어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북남관계개선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제안한 리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온 겨레가 힘을 합쳐 실현해야 할 민족공동의 목표이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비핵화의지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

조선반도비핵화의 기본취지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모두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을 종식시키고 이 땅에 언제 들이닥칠지 모를 무서운 핵침략을 앞질러 막자는데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남조선당국에 더 이상 미국의 위협천만한 핵타격수단들을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정중히 제안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동문서답식으로 조선반도의 핵문제가 마치 우리의 핵시험 등으로 발단된것처럼 여론을 돌리면서 우리의 정정당당한 제안에 대한 거부립장만을 내놓고 표명하였다.

언제나 말은 바른대로 하라고 하

겠다. 굳이 조선반도의 핵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지난 세기 50년대말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반입으로부터 발달되었다.

그때 미국은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는것이 미합중국의 핵정책》이라며 남조선에 1,000여발의 핵탄과 발사수단을 비밀리에 반입하여 도처에 비축하여놓았다.

이렇게 되어 발생했건이 조선반도의 핵문제이며 이에 대비한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과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마련된것이 다름아닌 조선반도의 비핵화 선언이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당국자들이 교체되었다 하여도 남조선당국은 마땅히 제 땅에서 발생한 핵문제의 근원만은 똑바로 알고 말해야 한다.

오늘의 맺힌 고리를 풀자면 지난날을 제대로 알고 정확한 립장을 표명하는데서 솔직하여야 하며 알면서도 사실을 외곡하거나 그릇된 립장과 주장을 고집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미국과 함께 남조선당국이 문제시하는 우리의 핵무력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한 실현해야 할 민족공동의 목표를 공갈하거나 해치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

우리의 병진로선 역시 미국이 강요하려는 핵전쟁의 참화로부터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한 자위적선택임을 다시금 강조한다.

남조선당국은 우리가 보유한 민족의 소중한 자위적핵무력에 대하여 시비하기 전에 외세의 핵을 끌어들이는 동족을 해치는 위험천만한 행위부터 스스로 거두는 용단을 내려야 할것이다.

남조선의 여러 정당들과 사회단체들, 각계층 인민들은 이 땅의 핵재난은 북으로부터가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온다는것을 똑바로 알고 외세의 핵타격수단들을 끌어들이는 사소한 움직임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당면한 핵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를 취하는 여기에 북남관계개선의 믿음직한 담보가 있고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진정한 길이 있다.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사적적대행위를 전면금지하는것과 함께 울려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도 마련되고 금강산관광도 재개하며 여러가지 북남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는것이 우리의 결심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립장은 확고부동하다.

북남관계개선이자 곧 온 겨레가 소원하는 자주통일이며 평화변영이다.

우리는 남조선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 각계층 인민들이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우리의 중대제안선에 한사람같이 적극 떨쳐나서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주제 103 (2014)년 1월 23일

과학 기술과 비약의 한 해

얼마전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국가과학원을 헌지지도하시었다. 그이께서 올해 인민경제 여러 부분의 수많은 단위들이 있지만 어찌하여 국가과학원을 처음으로 찾으시였는가.

그것은 사회주의를 지키고 강성국가를 건설하는데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이 선차적이고도 중요한 사업으로 나서고있기때문이다.

오늘의 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에 의해 국력이 결정되고 나라와 민족의 지위와 전도가 좌우된다. 국력경쟁이 치열한 오늘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중요하게 과학기술의 최첨단분야에 있다. 여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정초 국가과학원을 찾으시었다.

이날 그이께서는 우리가 강성해지고 잘사는것을 바라지 않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고립압살책동이 그어느때보다 악랄해지고있는 데 맞게 과학기술의 힘으로 부닥치는 예와 난관을 뚫

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학전선이야말로 사회주의 수호전의 전초선이라고 강조하시었다. 과학기술이 맨 앞 전선에서 혁신의 불꽃을 높이 추켜들고 나아가는 때 나라의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도 수호되고 인민의 행복과 찬란한 미래도 담보될수 있다는 그의 높이신 뜻이 구절구절 맥박치는 말씀이다.

아버이수령님 탄생 100돌 경축 열병식광장에서 력사적인 첫 연설을 하시면서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계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강성국가라는 독창적인 로선을 제시하시고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이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이나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지난해 온화과학자거리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짧은 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워주시고 11월에는 과학자, 기술자대회참가자들과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었다.

이번에 국가과학원을 찾으시어서도 은정과학자거리에 위성과학자거리를 조선로동당 창건기념일까지 훌륭히 일떠세우도록 해주시고 설명절을 맞으며 물고기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였으며 과학연구자들이 훌륭하게 일떠섰다.

올해를 과학기술성과의 해, 과학기술승리의 해로 빛내이며 조국의 부흥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투쟁에서 과학기술성과의 앞찬 열매로 조국의 부흥발전을 안아오시려는 그의 원대한 구상과 목표는 확고부동하다.

과학기술발전을 농업부문, 건설부문과 함께 올해 신년사의 첫 과업으로, 사회주의 수호전의 전초선으로 내세워주시고 과학기술중시정책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 한 정도와 그의 구상과 의도를 실천으로 만들어가는 수백만의 지식인대군이 있어 공화국은 지식경제전선의 지름길을 걷어가는 불타는 장엄한 전열에서 보다 큰 전진을 가져오야할것이다.

여러 부분들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실비들의 현대화가 힘있게 벌어지고 통합생산체제를 비롯한 생산과 경영활동의 정보화가 적극 추진되었으며 현대적인 과학연구기자들이 훌륭하게 일떠섰다.

과학기술발전을 농업부문, 건설부문과 함께 올해 신년사의 첫 과업으로, 사회주의 수호전의 전초선으로 내세워주시고 과학기술중시정책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 한 정도와 그의 구상과 의도를 실천으로 만들어가는 수백만의 지식인대군이 있어 공화국은 지식경제전선의 지름길을 걷어가는 불타는 장엄한 전열에서 보다 큰 전진을 가져오야할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옛 사람들이 이르기를 《곡식을 심으면 일년후에 수확을 하고 나무를 심으면 십년후에 결실을 맺지만 사람을 기르면 백년후가 든든하다.》고 했다.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운명을 결정하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할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교육을 비롯한 문화건설에서 큰 결실을 내걸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자고 해도 사회주의 문명화를 일떠세우자고 해도 제일 중요했는 인재를 키우는 사업이기에 문화건설의 맨 앞자리에 교육사업을 내세우시었다.

정보기술의 폭발적인 발전으로 세계에서 놀라운 사회경제적변혁이 일어나고있는 오늘날 지적자원, 인재대렬의 확보를 위한 교육사업은 국가중요의 국가사라고 할수 있다. 이 흐름을 타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문제를 국가적인 중점전략으로 내세우고 여기에 힘을 냈고있다.

공화국이 21세기의 새로운 문명화거리를 열어나가는 격동적인 시대를 맞이하게 된것은 절세의 위인들께서 마련하신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와 시

책이 있었기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절세위인들의 따사로운 손길아래 공화국에서 교육사업은 민족부흥의 천하지대본으로 자기의 자랑스러운 발전의 길을 걸어들었다.

일찍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독창적인 무료교육제의 고귀한 경험과 전통을 마련하시고 이에 기초하여 전반적무료교육제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원수님의 위대한 조국관, 미래관을 담은 숭고한 후대사라의 결정체이다.

그이께서는 뿌리가 든든하여야 충실한 열매가 달리는 것처럼 교육을 강화하여야 훌륭한 인재를 키워낼수 있다고 하시며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실시를 위한 거창한 사업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고 지식경제시대, 두뇌적인 시대인 오늘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과학인재들을 키우는 대학의 교원, 연구자들을 위해 현명적인 총동맹거리에 현대적인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도 번듯하게 일떠세우도록 해주시었다. 그 사랑에 떠받쳐오늘 공화국에서는 세인을 놀래우는 과학기술의 최첨단을 돌파하고있으며 국제수학을 립피와 같은 정기적인 국제 지식경연무대에서 미더운 새 세대들이 뛰어난 실력으로 조국의 위용을 남김없이 펼쳐가고있는것이다.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성장한 인재대군이 있고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교육사업을 제일로 중시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는 공화국의 미래는 백년, 천년 밝고 창창하며 머지않아 한것이다. 이 력사적시련을 비범한 선견지명을 지니시고 후대교육사업에 천만큼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조국관, 미래관을 담은 숭고한 후대사라의 결정체이다. 그이께서는 뿌리가 든든하여야 충실한 열매가 달리는 것처럼 교육을 강화하여야 훌륭한 인재를 키워낼수 있다고 하시며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실시를 위한 거창한 사업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고 지식경제시대, 두뇌적인 시대인 오늘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과학인재들을 키우는 대학의 교원, 연구자들을 위해 현명적인 총동맹거리에 현대적인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도 번듯하게 일떠세우도록 해주시었다. 그 사랑에 떠받쳐오늘 공화국에서는 세인을 놀래우는 과학기술의 최첨단을 돌파하고있으며 국제수학을 립피와 같은 정기적인 국제 지식경연무대에서 미더운 새 세대들이 뛰어난 실력으로 조국의 위용을 남김없이 펼쳐가고있는것이다.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성장한 인재대군이 있고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교육사업을 제일로 중시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는 공화국의 미래는 백년, 천년 밝고 창창하며 머지않아 한것이다. 이 력사적시련을 비범한 선견지명을 지니시고 후대교육사업에 천만큼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조국관, 미래관을 담은 숭고한 후대사라의 결정체이다. 그이께서는 뿌리가 든든하여야 충실한 열매가 달리는 것처럼 교육을 강화하여야 훌륭한 인재를 키워낼수 있다고 하시며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실시를 위한 거창한 사업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고 지식경제시대, 두뇌적인 시대인 오늘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과학인재들을 키우는 대학의 교원, 연구자들을 위해 현명적인 총동맹거리에 현대적인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도 번듯하게 일떠세우도록 해주시었다. 그 사랑에 떠받쳐오늘 공화국에서는 세인을 놀래우는 과학기술의 최첨단을 돌파하고있으며 국제수학을 립피와 같은 정기적인 국제 지식경연무대에서 미더운 새 세대들이 뛰어난 실력으로 조국의 위용을 남김없이 펼쳐가고있는것이다.

백년후에도 든든하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후대들을 위한 사랑의 수천수만리를 걸으시면서 온 나라에 학교들과 학생소년궁전, 야영소들을 세우도록 하시고 전반적인과학기술의무교육에 이어 세계에서 처음으로 되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험난한 전진길을 헤쳐가시며 공화국을 교육의 나라로 더욱 빛내주시었다. 그난의 행군을 하는 것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전반적무교육, 의무교육이 중단없이 진행되도록 하시고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세상에서 제일 좋고 훌륭한것만을 안겨주시는 그의 뜨거운 후대사랑이 있어 시련의 시기에도 해빛은 교실마다에서는 배움의 글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질수 있



사랑과 믿음의 정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올해 신년사가 전체 인민의 마음과 발걸음을 애국충정에 모아 협차게 고무하고있다. 지난해를 총화하고 올해의 전망과 과업을 제시하신 신년사의 자자구구는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열화같은 사랑으로 일관되어있다.

지난해의 빛나는 승리와 성과들은 우리 당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로선과 정책, 현명한 정도를 받들고 전당, 전국, 전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거어 일떠세울 불굴의 신념과 의지로 영웅적 투쟁을 과감히 벌인 결과에 이룩된 자랑찬 결실이라고 할 대목, 새해를 맞으며 온 나라 모든 가정들에 더 큰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원한다는 구절을 보면 지난해의 의의있고 훌륭한 모든 성과들이 인민들의 헌신적인 애국의 노력에 따른것이라는 크나큰 믿음이 있고

인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바라는 열렬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것이다. 그이께서는 신년사에서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지게 일으켜나가지!》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였는데 마디마디에는 자신을 믿는것처럼 인민을 굳게 믿으시고 인민의 힘과 애국충정에 의거하여 올해를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로 만드시려는 굳은 확신과 의지가 반영되어있다.

농업, 건설, 과학기술부문의료부, 보건, 체육, 문화예술부문과 국방력강화문제에 이르기까지 올해에 해야 할 과업들과 방도들을 명시하신 그의 구상과 의도, 결심에는 전체 인민의

순결한 애국심과 무궁무진한 창조적, 불굴의 정신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사랑이 담겨져있다.

그이께서 올해에 새로운 변혁기를 열어놓아야 한다고 하신 건설부문만 봐도 그렇다. 지난해에 전체 인민에게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는 믿음과 고무의 호기를 보시며 마식령스키장, 미림초마구락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문수물놀이장, 온화과학자거리와 같은 창조물들을 짧은 기간에 련이어 일떠세우고 건설의 최전성기가 펼쳐지게 하신 그이께서는 올해에 세계적수준의 건축물들과 인민들의 생활조건개선을 위한 건

설을 많이 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었다. 강인당의 고산과수농장과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그리고 살림집과 문화봉사기지건설 등 방대한 건설과제를 밝히신 그의 구상에는 산도 때우고 바닷도 메우는 불굴의 기개와 고귀한 피와 땀으로 조선을 한다면 한다는것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이 있는것이다. 강성국가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 인민들의 행복의 터전이 훌륭히 마련되게 하시려는 숭고한 사랑이 담겨져있는것이다.

지난해에 남들같으면 10년, 20년 걸려서야 할 방대한 규모의 세계적수준 건축물들이 몇달사이 건설되던것은 온 한해 연 100여차

에 걸쳐 건설장들을 비롯한 수많은 단위들을 헌지지도하시며 건설자, 생산자들을 뜨겁게 고무격려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 애국헌신에 의해 마련된 고귀한 결실인것이다.

그이께서는 부강조국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정신력을 매우 중시하시는데 올해 신년사에서도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원설치는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발동시켜야 한다고 하신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폭발시키기 위한 사상전, 선동전의 원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지적하시었다.

연제나 인민을 제일로 위하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정치를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어 올해에 공화국은 더 큰 비약과 승리의 한걸음을 걸어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 설

인민이 사랑하는 정도자

또한 그이께서 문수물놀이장을 세계적인 물놀이장으로 훌륭히 완공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는것이 당의 결심이고 의지라고 하시는데 해서와 마식령스키장을 인민들이 먼 후날에도 더욱 보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로 꾸려야 한다고 하시는데 대해서도 전하였다.

로씨야신문 《나쉬 돔—쑤치》1일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지지도사진들을 모시고 《인민이 사랑하는 정도자》라는 제목의 글을 옹근 한면에 편집하였다.

신문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도도에 지난 한해동안 조선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변혁이 창조된데 대해

여 려거하고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인민은 이처럼 크나 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조국경사에 길이 빛날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행복의 창조자,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정은정도자께 다함없는 감사를 드리고있다. 김정은정도자의 고결한 품모에서 사람들은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정도자의 모습을 보았다. 그이께서는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전체 군대와 인민을 힘있게 불러 일으키신다.

그이께서는 현대과학기술에 정통하고계실뿐 아니라 경제발전방향과 그 동향, 문화 예술 등 사회생활의 모

든 분야를 환히 꿰뚫고계신다. 김정은정도자께서는 특히 비범한 최고사령관으로서 세계의 특별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계신다. 그의 정도는 조선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생명선으로 되고있다.

그이에 대한 조선인민의 절대불변의 믿음, 그것은 위대한 아버지, 절세의 애국자, 강철의 령장, 결출한 정도자를 진심으로 우러러 받드는 마음이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김정은정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광명한 미래를 앞당겨나갈것이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지금 그 어디를 가보나 설맞이를 앞둔 풍경이 이채롭다.

민족의 향취가 한껏 흘러 넘치는 공화국의 설맞이 풍경이다.

설명절은 조상전래의 전통명절이지만 나라없던 지난 세월에는 설명절의 기쁨마저 모르고 살았던 우리 겨레였다.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수천년동안 겨레가 즐겨온 설명절풍습과 민족을 잃어버리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민족의 전통과 풍습을 앗아가 점차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였다.

설무렵이면 며칠전부터 총칼을 빼들고 전국의 떠방아간을 들리지 못하게 하고는 설날 아침 세배하러 다니는 사람들과 아이들에게 검은 물감을 탄 물총을 쏘아대는 등 별의 별 못된짓을 다하였다 한다.

하기에 어느 한 문예인은 끝없이 쏟아지는 하얀 눈속에 고향을 불러보니 가슴이

아프다는 노래를 지어 식민지민족의 슬픔을 토로하였었다.

우리 겨레에게 민족의 전통적인 설명절의 기쁨을 다시 찾아주시는 해방의 은인이신 김일성주석이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시 행복의 설명절을 위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즐거운 명절로 대대손손 인민들이

즐기도록 하여주시었다. 민족성을 살리는것을 민족의 자주적존엄을 높이 떨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여기신 그이께서는 어느해인가 옛날부터 우리 사람들은 음력설을 쇠어왔다고, 우리가 음력설을 쇠지 않으면 후대들이 음력설이 어떤것인지 알지 못하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번 음력설을 명절로 크게 쇠도록 하라고 하시었다.

장군님의 현명한 정도가

있어 세월의 모진 풍파속에서도 민족의 전통과 풍습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더욱 활짝 꽃피워나가는 공화국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다.

1990년대는 제국주의자들의 《세계화》바람으로 지구상의 곳곳에서 외풍이 어지럽게 퍼들고있던 시기였다.

바로 이러한 때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시었다. 또 언제나 가는 우리는 물론 현대인들이 가장 선진적이고 문명인 사람들이지만 지난해 우리 선조들이 음력설을 어떻게 쇠었는가 하는것도 알아두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선조들이 창조하고 대를 이어오면서 지켜온 민족전통에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사상감정과 례의도덕, 조선사

람의 독특한 생활양식과 우리 민족의 고유한 기호와 특성이 있다고, 민족을 버리면 민족을 잃을수 있다고 하시며 민족적특성을 더 잘 살려 나가게 해야하며 일일이 가르쳐주시었다.

민속을 버리면 민족을 잃을수 있다.

깊은 뜻이 담겨져있는 그의 말씀에는 위인이 지닌 민족의 심오한 품과 깊이가 어리어있어 오늘날도 겨레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

수필 작식을 키우는 어머니치고 걱정이 없지는 어머니는 아마 세상에 없을것이다.

행복한 걱정은 어머니의 걱정은 오만가지라 했던가. 그러나 어머니를 일반이 품고있는 법이 아닌 한 걱정도 있다.

그에서 예로부터 어머니의 걱정은 오만가지라 했던가. 그러나 어머니를 일반이 품고있는 법이 아닌 한 걱정도 있다.

취재차로 새로 일떠선 유류아동병원에 갔던 나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한 어머니가 아들과 병원 문앞에서 막 생강이를 하고 있었다. 사연인즉 자식의 퇴원날이어서 병원을 찾는 어머니앞에서 아들이 병원에 그냥 있었다는 투정질에 빳빳한 실랑이였다.

병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울음부터 터트리며 안가겠

다고 베틀대던 애가 병원에 들어가보고는 언제 아팠던가싶게 뺨뺨이 웃으며 기거기 뛰어들더니 이제

는 입원생활에 정이 들어 퇴원을 안하겠다고 한다는것이였다.

놀이감이란 놀이터랑 참 재미있고 좋아서 집보다 더 좋은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며 아들은 어머니의 등을 떠밀고있는참이였다.

어머니는 알다도 본다. 꾸미랴도 안다. 허며 너무도 안타까와 그만 울상이 되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언젠가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초마구락부에 갔을 때에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떠돌이를 해대는데바람에 정말 혼술이 났다고, 이제는 그 어디에 가도 아들을 데리다 집으로 데리고올 걱정이 먼저 앞선다

고 말하는것이였다. 걱정, 이런 류다른 걱정, 행복한 걱정을 안고있는것이 이 나라의 모든 어머니들이다.

세상을 둘러보면 자식들때문에 눈물로 젖은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사는 어머니들이 적지 않다.

지금 많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자녀 한명을 낳아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키는데 드는 양육비부담이 너무

무 힘에 부쳐 어머니들이 한숨과 걱정으로 날을 보낸다 한다.

엄청난 돈적정 때문에 청춘남녀들속에서는 결혼자체를 포기하는 풍조가 만연되고 자식을 낳지 않는 부모들이 부지기수이며 무자식상팔자라는 말이 보편화되고있는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또 애써 키운 자식이 어지러운 사회풍조에 물젖는 때를아래 회피는 않겠는지, 아동학대의 희생물이 되지는 않겠는지...

자본주의세계에서는 어느 나라나 비밀비재한 현상이 고 현실이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는 어느 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 보아도 그런 근심과 걱정의 그늘을 찾을래야 찾아볼수 없다.

병원에 가서 하는 걱정은 치료비 걱정이 아니라 입원시켰던 아이들이 퇴원시킬 걱정이 아닌 걱정이다.

나는 취재수첩을 펼쳐들고 가슴 가득히 차오르는 걱정의 마음을 적어내려왔다. 세상과 없는 걱정, 행복한 걱정속에 이 나라 어머니들이 산다.

리경월



유류아동병원의 실내 놀이장에서

《북남사이의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주제103(2014)년 신년사중에서)

자주 통일과 평화번영을 안아오기 위한 선결조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올해에 조국 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기 위하여 북남사이의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었다.

북남사이의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하는것은 자주 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북남관계는 괴를 나는 동족사이의 관계, 함께 통일가는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이다.

북과 남사이에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 민족이 갈라져 살아야 할 조건은 될수 없으며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민족적공통성이 훨씬 더 크다.

북남관계의 개선이 없이

민족의 화합과 통일, 평화번영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 북남관계가 개선되어야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옹호로 풀어나갈수 있다. 6.15시대에 우리 민족을 격동과 환희로 휩어번지게 한 경이적인 사변들은 북남관계개선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고 나라의 통일과 평화번영도 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었다.

남조선당국의 반복대결정책은 북과 남사이의 불신을 낳는 근원으로 되고있다.

북남사이의 진정한 신뢰가 조성되자면 동족에 대한 비방과 대결책동이 중지되어야 한다. 상대방의 체도를 비방 중상하고 민족문제, 북남관계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국제공조》를 청탁하는것은 《신뢰》가 아니라 민족

의 운명을 외세의 통략물로 내맡기는 수치스러운 사대매국행위이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갈라져 살고있는것만도 가슴 아픈 일인데 동족끼리 비방하고 반목질시하는것은 용납될수 없으며 그것은 조선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세력들에게 어부지리를 쏘는것이다. 백해무익한 비방중상을 끝낼 때가 되었으며 화해와 단합에 지혜를 주는 일을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정쟁전환을 하여 반복대결정책을 전면부화해정책으로 바꾼다면 북남관계가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개선되게 될것이며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무모한 동족 대결과 《총복》소동을 벌리지 말아야 하며 자주와 민주,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 개선으로 나와야 한다.

공화국은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든가 누가든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나아갈것이며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것이라는 립장을 여러차례 표시하였다.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의 중재제안과 공개서한에 담긴 북남관계개선의지를 바로 보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참다운 애국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굳게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올해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기어이 열어 나갈것이다.

본사기자 최광혁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

화해의 선을 잡아라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하고있는 분렬의 력사는 70년 세월을 가까이 하고 있다. 나라가 분렬된 첫 시기부터 수십년간 공화국은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민족적화합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진지하고도 시종일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공화국의 발기와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1948년 4월 평양에서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가 열렸으며 회의에서는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조선인민사신의 손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진정한 통일정부를 세울것이라는것을 엄숙히 선언하였다.

민족의 요구와 리익을 첫차리에 놓고 통일위업실현에 모든것을 복속시켜나가는 공화국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지난 세기 70년대에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북과 남이 확약한 7.4공동성명이 발표되어 온 겨레의 가슴을 통일의 환희로 휩어번지게 하였다.

새 세기의 지평이 열리는 2000년 6월에 우리 민족끼리를 기본리념으로 하는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된것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끊어졌던 하늘길, 땅길, 바다길이 열리는 경이적인 사변들로 아로 새겨진 6.15통일시대는 수십년간 쌓여온 불신과 대결의 감정을 문눈듯이 털어버린 감격과 격동의 순간들의 연속이었다. 온 겨레가 손을 잡고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장엄한 통일대진군을 벌려온 그 나날들에 북과 남사이에는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인 10.4선언도 채택발표되었다.

남조선에서 6.15통일시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매도하는 공우보수세력의 집권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던 우리 겨레의 통일진군길에 엄청난 난관이 조성되었지만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힘기하여 조국을 통일하려는 공화국의 립장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었다.

2011년 정초에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들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와 시대적, 민족적사명감과 책임감으로부터 온 겨레의 평화와 통일의지를 모아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내거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애국의 결단으로 남조선당국과 정당, 단체들에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제의하는 중재제안을 발표하였다. 공화국은 또한 지난해에도 6.15를 맞으며 개성공업지구정상화와 금강산관광개발을 위한 당국회담을 포함한 제안을 담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문을 발표하고 여러차례의 실

무회담 끝에 개성공업지구정상화를 이룩하는 등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다.

새해에도 공화국은 력사적인 신년사를 통해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할데 대한 문제 등 올해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앞길을 제시하였다. 얼마전 공화국 국방위원회가 서로를 자국하고 비방중상하는 모든 행위들을 전면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실행, 상대방에 대한 모든 군사적대행위 전면중지, 이 땅에 초래할 핵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조치를 취해나가는것을 내용으로 한 중재제안을 남조선당국에 정식 제의하고 련이어 공개서한을 발표 한것도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성의있는 자세와 노력의 표시이다.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사적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공화국은 지난해도 그리하였지만 앞으로는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나아갈것이며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성의와 야망에 진정으로 화답하여야 하며 불신과 대결의 늪은 칼을 버리고 동족이 내미는 따뜻한 손길을 잡아야 한다.

공화국은 나라의 통일과 평화번영을 바라는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과 함께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의 기치를 하루빨리 앞당겨올것이다.

서철수

북남공동선언은 민족공동의 통일리정표

외세에 의하여 우리 민족이 분렬의 비극을 강요당할 때로부터 세월은 무정하게 흘러 벌써 69년의 년월을 새기고있지만 아직도 우리 겨레의 소망인 조국통일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북남관계도 사상 최악의 위기를 겪고있다.

오늘날 조국평우에 무겁게 드리운 대결과 전쟁의 위협을 가지고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것은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열망이다.

겨레의 지향과 념념대로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밝은 앞길을 열어나가자면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북남공동선언들이 철회되고, 구수, 리행되어야 한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열쇠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대화와 협력, 래왕과 교류의 넓은 길을 열어줌으로써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운동의 전환적국면을 활짝 열어놓았다.

6.15공동선언의 발표이후 북과 남은 우리 민족끼리정신에 따라 대화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였다. 북남대화는 소모적인 론쟁의 과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의의있는 대화로 발전하였고 이 과정에 각 방면에 걸쳐 협력사업들이 진행됨으로써 불신과 대결의 감정이 해소되어갔다.

북남간단제들사이의 래왕과 교류의 길이 넓어지는 속에 중요한 계기들마다 민족공동의 통일행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해외의 각계 통일운동단체들사이의 련대련합이 강화되었다. 파산의 위기에 헤매던 남조선의 수많은 기업들이 북남경제협력의 혜택속에 공동번영의 동음을 높이 울리며 민족경제발전에 이바지했다.

6.15의 기치따라 활력있는 발전의 길을 걸은 북남관계는 10.4선언의 채택으로 더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었다. 6.1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담은 10.4선언의 채택은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새로운 토대를 닦고 자주통일위업의 승리에 대한 우리 민족의 확신을 더욱 굳게 해주었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에 대한 온 겨레의 생활적요구와 리해관계를 실현하는데서 그 무엇보다 북남공동선언들을 대신할수 없다.

6.15공동선언의 발표로 펼쳐졌던 환희의 통일시대는 북남공동선언들이 사상과 리념이 서로 다른 북과 남의 우리 민족에게 공감될수 있는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며 어떤 정세하에서도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조국통일의 기치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태도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가 아니라 그렇지 않다는가 판단하는 기준이며 대화와 대결, 평화와 전쟁의 립장을 가르는 시금적으로 된다. 선언들을 부정적으로 대하며 그 리행을 거부하면 대결과 북남관계의 파괴를 피할수 없다. 모처럼 마

련되었던 북남대화가 파란되고 북남관계가 다시 최악의 대결상태로 돌아간 지난 1년간 이 교훈으로 가르쳐주는것은 공동선언의 존중과 리행을 떠나서 북남관계의 옹호를 수립과 발전을 기대할수 없다는것이다.

하기에 공화국은 새해에 들어와 외세를 배격하고 공동선언에서 천명된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호소하였다.

진정으로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리행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 그릇된 대결관념에서 벗어나 민족의 리익을 첫차리에 놓고 우리 민족끼리 공조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의 리정표인 북남공동선언들을 높이 추켜들고 거족적인 통일애국운동을 벌려나감으로써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앞길을 기어이 열어나갈것이다.

림소영

필승의 신념을 안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 밑에 조국통일을 성취하자

해외 동포들의 강렬한 통일열망

올해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데 대하여 밝혀주시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뜨거우 감격과 환희속에 받아들이는 해외동포들속에서 통일열망이 더욱 세차게 분출되고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는 온 겨레와 더불어 재일동포들을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기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고무적기치, 승리의 기치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총련일군들과 재일 동포들은 조국통일에 대한 신념과 애국의 열정으로 가슴불태우며 필승의 신념을 안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조국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투쟁을 즐기차게 벌려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북과 남의 온 겨레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며 하루빨리 나라가 통일되기를 념원하고있다. 비록 나라의 분렬로 인해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지만 그것은 동족끼리 불신하고 적대시해야 할 리유로는 되지 않는다.

동족끼리 비방중상해야 피해를 보는것은 우리 민족자신뿐이다. 하기에 북과 남은 지난 시기 여러 계기들에서 조국통일을 중시하며 상대항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음에 대해 합의하였으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조국통일사업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성국가를 기어이 이 땅우에 일떠세우시려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가 담겨져있다고 격찬하였다.

재중조선인들이 절세위인의 뜨거운 민족애와 통일의 지가 맥박치는 신년사를 구절구절 새기며 올해에 반드시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 열의에 넘쳐있다고 단체들은 강조하였다.

새해 온 겨레가 민족대단합과 북남관계개선의 희망으로 들끓고있을 때에 남조선당국이 민족의 통일

년원에 도전하여 년초부터 학야내를 풍기면서 군사연습을 벌려왔는데 대해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가 강력히 규탄하였다.

남조선당국이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대결과 의세추종에서 벗어나 화해와 민족공영, 평화를 요구하는 온 겨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북남관계개선의 길에 성실히 나설것을 단체는 요구하였다.

우크라이나고려인통일련합회 위원장과 기르키즈스탄 고려인통일련합회 위원장은 반목과 질시를 더이상 허용하지 말며 민족의 화해를 이룩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시대적 필연과 과제이다,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높이 민족

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갈것이라고 밝혔다.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위원장은 민족이 바라는것은 북과 남이 화해하여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관통하고있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는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해외본부의장은 우리에게는 통일운동에서 이룩한 소중한 투쟁경험이 있으며 민족이 합의한 민족통일대강이 있기에 승리는 필연적이라고 확인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유령지역본부와 재도이힐란드 동포협력회, 재조조선

공민중앙협의회도 온 겨레와 함께 참다운 애국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굳게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힘차게 떨쳐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재미동포인테레트신문 《민족통신》 대표는 올해 해외동포들속에서 통일열망이 강렬해지고있다고 하면서 해내의 우리 민족이 힘을 합치면 통일은 반드시 이룩될수 있다고 확인하였다.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회장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아래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이 굳게 뭉쳐 거족적인 통일운동을 앙양시켜 나가자고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관계개선의 첫걸음

가 재현되고 그것이 날로 더욱 심해져 대결을 격화시키고 겨레에게 실망과 우려를 안겨주고있다.

이 비정상적이고 비극적인 일들은 이제 더이상 지속되지 말아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중지는 관계개선의향을 표시하고 그것이 교묘대로 교묘 북남관계를 푸는 첫걸음이 될수 있다. 북과 남의 우리 겨레는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하나의 대결을 격화시키는 백해무익한 비방중상은 더이상 허용될수 없다.

바로 그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중재제안을 통하여 음력설명절을 계기로 서로를 자국하고 비방중상하는 모든 행위부터 전면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자는것을 남조선당국에 정식으로 제의하였다.

올해는 북남관계사는 민족 내부에 반목과 불화를 조성

이다. 비방중상의 증지는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의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구체적인 행동조치로 된다.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중대시키고 대결과 적대감을 고취하는 비방중상을 끝낼 때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도 마련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새 전기도 펼쳐지게 될것이다.

자은정

《남북관계개선에 나서라》

이러 《평양집령령을 상징한 대우모전정연습이 (년례적)이고 (방어적)이라는 말장난은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고 1992년 북미간 고위급회담을 시작하면서 (한)미련합전정연습 (덥스스피리트)를 중단했던 전례도 있지 않은가》라며 《리산가족문제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정밀 리산가족문제를 꼭 필요한 인도적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금강산관광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가운데 추진하면 될 일》이

라고 덧붙였다. 경남진보련합은 《취임이래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개선에 실천적의지를 보이지 않아왔다.》며 《새해 들어서도 북의 제안을 모두 거부한채 구체적노력은 하지 않고있다.》고 까맣았다. 이 단체는 《이대로 가다간 돌아오는것은 남북간 대결과 충돌밖에 없다.》며 《박근혜 (정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1~3월위기를 계속 거론하고있는데 위기설만 류포할것기 아니라 위

본사기자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통일의 아침을 부르는 애국애족의 호소

장장 69년을 헤아리는 국토광장과 민족분열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가 남조선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 각계층 인민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은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부르는 애국애족의 호소이다.

새해에 들어서면서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신년사를 통해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도를 내외에 선포하신데 이어 지난 16일에도 공화국국방위원회는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 나갈것을 호소한 중대제안을 남조선당국에 보냈었다. 그때로부터 불과 8일만에 또다시 경애하는 원수님의 특명에 따라 국방위원회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을 통한 통일의 활로를 열어 나가자고 호소한 이 공개서한이 야말로 불보다 뜨거운 민족애와 통일열의로 가득찬 진정어린 목소리이며 동족에게 내미는 따뜻한 손길이다.

공개서한에 지적된 북남관계를 개선하는 문제에 대한 립장과 자세를 바로가자는 문제, 불신과 대결을 낳는 가장 큰 장애물인 군사적대행위를 전면금지하는 결

단을 내리는 문제, 이 땅에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핵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를 함께 취해나가는 문제들은 오늘날 북남관계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초미의 문제이다.

북남관계를 개선하는 문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통일의 지름길을 열어가기 위한 첫 출발점이다.

따라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 누구이든, 어떤 정권과 신앙을 가지고 있든 언제나 민족중시, 민족우선의 립장에서 백사만사를 덜어놓고 성심과 성의를 다하여 성사시켜야 한다. 불신과 대결상대가 오래 지속되고있는 조건에서 북과 남이 지난 시기의 일들을 두고 왈가왈부하는데 집착한다면 북남관계는 한결같은 진전할수 없다.

하기에 공화국은 서로가 상대를 자극하고 비방중상하는 배해무익한 행위를 전면금지하자고 제안하고 그 실천적모범으로써 일방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전면금지하는 길에 들어섰다.

남조선당국은 관계개선을 위한 공화국의 편이온 진정어린 제안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남조선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 각계층 인민들도 겨레의 뜨거운 호소에 목소리를 합쳐야 한다.

외세와 야합하여 벌리는 동족을 겨냥한 침략전쟁연습은 북남관계개선의 가장 큰 장애물로 되고있다.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가 조성된 이 땅에서 사소한 우발적충돌도 순식간에 전면전쟁으로 번져질수 있다는것은 내외가 일치하게 공인하고있는 문제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 민족은 지금껏 이루어놓은 인적, 물적자원을 깡그리 잃어버리는 비극을 겪게 될것이며 거기서 어부지리를 얻을것은 통일을 원치 않는 세력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남조선당국이 2월말부터 벌리려고 하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민족의 머리에 들이쳐질러 하는 불행과 재난의 불구름이라고 고백에 달리 말할수 없다.

공화국은 벌써 서해 5개 섬 열점수역을 포함한 최전선 지역의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모든 군사적대행위까지 전면금지하는 실천적인 조치들을 먼저 취하기로 하였다. 남조선당국도 외세와 야합한 합

동군사연습을 전면금지하던가 아니면 우리 나라 영토나 영해, 영공을 벗어난 한적한 곳이나 미국에 건너가 하는 선의의 행동으로 화답하여야 한다.

이 땅에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핵참화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를 취하는것은 북남관계개선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오늘 조선반도에는 판도와 오기나와, 서부태평양수역과 미국본토에서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아무 제약도 받지 않고 때없이 쏟아지는 마른하고 금강산관광도 재개하며 여러가지 북남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는것은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다.

신뢰는 동족의 진심어린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내미는 따뜻한 손길을 자그마한 가치도 없이 뜨겁게 맞잡을 때 비로소 형성되고 공고화될수 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북남관계가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것처럼 무엇이든 하는것은 이제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에 달려있으며 온 겨레는 남쪽의 차후행동을 지켜보고있다.

본사기자 김철민

시각적절하고 정당한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는것이 아니라 의구심으로 대하다 못해 도전해나서는 남조선당국의 처사는 민족을 위한, 화해와 단합을 위한 립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남조선에서 현 《정부》가 출현한지도 1년이 되어오고 있다.

《원칙론》교수로 1년이라는 시간을 날려보내고도 교훈을 찾지 못하고 대결자세를 취하면 앞으로의 4년도 계속 이렇게 흘러갈수 있다. 북은 년초부터 계속 화해의 문을 두드리고있다. 남측은 이에 성의로 대답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남조선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 각계층 인민들에게 보내는 공화국국방위원회 공개서한을 접하니 흥분된 마음을 억제할수 없다.

이번에 발표된 공개서한에는 근 70년동안이나 지속되고있는 국토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고 나라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하려는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가 그대로 반영되어있다고 생각한다.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새해신년사와 지난 1월 16일 중대제안에 이어 또다시 발표된 국방위원회 공개서한은 불미스러운 모든 과거를 불문치 않고 서로의 힘을 합쳐서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열려는 공화국의 의지가 얼마나

뜨겁고 강렬하며 진실한것인가를 잘 보여준다.

당과 국가, 군대사업을 영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특명에 따라 국방위원회가 보낸 공개서한에도 지적되어있는것처럼 공화국은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미 일방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자극이나 비방중상을 전면금지하는 길에 들어섰다. 또한 벌써 서해 5개 섬 열점수역을 포함한 최전선의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모든 군사적대행위까지 전면금지하는 실천적인 조치들을 먼저 취하기로 하였다.

중대제안에 이은 공개서한은 그 무슨 《위장평화공세》도 아니고 《선전선리전》, 《명분쌓기》도 아니

며 진실로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립장을 재확인한것이다.

남조선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 각계층 인민들은 온 겨레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한 공화국의 중대제안 실현에 한사람같이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이제는 남측이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이다.

우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인의 전체 일군들은 공개서한에 제시된대로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것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겸사 전병훈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용군으로 공화국북반부에 들어와 지금까지 근 60년동안 과학의 최고전당에서 교편을 잡고있는 나에게 있어서 꿈에 그리는 소원이 있었나 그것은 통일된 조국의 대학교단에서 북한의 청년학생들에게 문학강의를 하는것이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겨레모두가 바라는 통일은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다. 오히려 북남관계는 이전보다 더 악화되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긴박한 정세만이 조성되

고있다.

이번에 남조선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 각계층 인민들에게 보내는 공화국국방위원회 공개서한이 발표된것은 이 비극적인 현실을 어떻게 하나 라게하고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 꿈에도 소원인 통일과 평화번영의 밝은 아침을 안아오려는 지극히 정당하고 시기적절하며 획기적인 애국애족의 호소이다.

지금 우리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국방

위원회 공개서한을 적극 지지하면서 남조선의 모든 대학 교직원들과 학생들도 이에 적극 호응해나설것을 바라고있다.

우리 겨레에게 참을수 없는 아픔과 고통만을 주는 대결과 분열의 긴긴 역사를 이제는 단호히 끝장내야 한다. 이는 통일조국의 교단에서는 그날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 원사, 교수, 박사 김영향

진정으로 화답해나서야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에서 발표한 중대제안에는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군사적충돌과 전쟁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방도를 밝혀져있다.

새해신년사의 정신을 담은 이번 중대제안발표는 어떻게 하나 올해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었고있다.

하기에 공화국의 중대제안은 동포사회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큰 공감과 지지를 불러일으키고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남조선의 일부 극우보수세력들속

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불순한 목소리들이 심상치 않게 터져나오고있다.

공화국의 중대제안을 《선전공세》, 《명분쌓기용》으로 중상모독하다 못해 나중에는 《금번시대》를 위우며 북을 위협하는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한사코 벌려놓으려 하는것이 바로 그것이다.

동족대결을 끝장내고 화해와 평화의 봄을 불어오려는 공화국의 진정담긴 조치가 덮어놓고 재를 뿌리면서 외세의 부침장단에는 맹목적으로 끌려다니는 대결적이며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서는 언제 가도 북남관계

가 개선될수 없으며 조선반도의 평화도 이룩할수 없다. 선의와 진실에는 성실과 진정으로 화답하는것이 북남관계에서의 도덕이다.

남조선당국은 동족이 내미는 선의의 손길을 뿌리치지 말아야 한다.

나라의 통일과 북남관계 개선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다.

반만년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조선민족의 한 성원으로서라도 조국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애국애족에는 힘과 열정을 다 바쳐가겠다.

재중동포 리운상

지난 16일 공화국은 나라의 자주통일과 민족의 평화번영,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중대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실천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주게 될것이라는것을 밝혔다.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성의있는 제안은 나오자마자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커다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한시바삐 당국의 긍정적호응이 표명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벌어지는 일들은 사람들의 실망을 자아내고 있다.

남측에서는 공화국의 중대제안을 당치않은 비방중상으

로 헐뜯는 한편 침략전쟁연습을 기어이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쓰면서 긴장상태를 더욱 첨예화시키고있다.

이어 공화국의 중대제안이 《선전공세》나, 《남북관계파란의 책임을 남에 넘겨줘야기 위한 명분쌓기용》

로 헐뜯는 한편 침략전쟁연습을 기어이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쓰면서 긴장상태를 더욱 첨예화시키고있다.

이어 공화국의 중대제안이 《선전공세》나, 《남북관계파란의 책임을 남에 넘겨줘야기 위한 명분쌓기용》

로 헐뜯는 한편 침략전쟁연습을 기어이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쓰면서 긴장상태를 더욱 첨예화시키고있다.

이어 공화국의 중대제안이 《선전공세》나, 《남북관계파란의 책임을 남에 넘겨줘야기 위한 명분쌓기용》

로 헐뜯는 한편 침략전쟁연습을 기어이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쓰면서 긴장상태를 더욱 첨예화시키고있다.

이어 공화국의 중대제안이 《선전공세》나, 《남북관계파란의 책임을 남에 넘겨줘야기 위한 명분쌓기용》

로 헐뜯는 한편 침략전쟁연습을 기어이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쓰면서 긴장상태를 더욱 첨예화시키고있다.

이어 공화국의 중대제안이 《선전공세》나, 《남북관계파란의 책임을 남에 넘겨줘야기 위한 명분쌓기용》

로 헐뜯는 한편 침략전쟁연습을 기어이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쓰면서 긴장상태를 더욱 첨예화시키고있다.

이어 공화국의 중대제안이 《선전공세》나, 《남북관계파란의 책임을 남에 넘겨줘야기 위한 명분쌓기용》

로 헐뜯는 한편 침략전쟁연습을 기어이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쓰면서 긴장상태를 더욱 첨예화시키고있다.

이어 공화국의 중대제안이 《선전공세》나, 《남북관계파란의 책임을 남에 넘겨줘야기 위한 명분쌓기용》

통일의 새날을 펼쳐자

동족대결의 마파람 밀어제기며
통일의 봄우회 울렸다
삼천리강토에 환희로운
민족화해와 단합의 새날을 펼쳐자

이제는 끝장낼 때가 되었다
동족끼리 비방하고 반목질하는
배해무익한 비방중상을
남뉘겨뜰들이어
대결의 광풍을 맞받아
펼쳐나서라, 민족단합의 길에

근 70년 너무도 오랜 세월
외세에 의해 갈라져 사는 우리 겨레
그 아픔만도 가슴짖는데
어인 말인가, 날마다
동족끼리 비방중상하며 싸우다니

더는 안된다, 이대로는
정치가는 기업가는 종교인이든...
이 땅 삼천리에 태몽은 사람이라면
누구도 말할수 없거늘

분열된 조국을 그대로 두고
인간의 생을 살았다고

6.15를 맞이했던 7천만겨레여
이제는 끝장내자
동족끼리 비방중상
대국들에 어부지리나 주는
외세와의 전쟁책동을

우리는 반만년력사 자랑찬 민족
우리의 힘으로 못헤낼것 무어나
삼천리에 얼어붙은 대결의 얼음장을
민족의 뚫는 피로 녹여버리자
광휘로운 통일해발이래서
북과 남이 화해하고 단합을 이루자

오, 세월의 봄은 계절따라 와도
통일의 봄은 우리에게 달렸거니
우리 민족 힘합쳐
세월의 밖으로 영영 차버리자
수치스러운 분열세월을
우리 민족끼리로 통일봄 맞이하자!

합동군사연습은 무조건 중단되어야 한다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민족일보》가 17일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무조건 중단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발표하였다.

사설은 미국과 남조선이 2월말부터 대형수송기, 대형상륙함 등 공중과 해상의 방대한 전쟁장비들과 무력을 동원하여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려 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여기에 일본 오기나와에 있는 약병높은 미3해병기동군까지 투입됨으로써 그 규모는 최대규모로 된다고 비난하였다.

이 북침전쟁연습책동으로 정세가 극도로 긴장되고 조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상태가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마치 남북관계개선을 바라는것처럼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전쟁위험을 피할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북침전쟁연습을 중단하는 길뿐이라고 사설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중대제안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1월 30일부터 설명절을 계기로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중상하는 모든 행위부터 전면 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자라는것을 남조선당국에 정식으로 제의하였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모든 군사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것을 제안하면서 당면

1월 23일은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선생이 처음으로 북행길에 오른 때로 무려 25년이 되는 날이다.

이 때 그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접견을 받는 남다른 행운을 지니었다.

당시로 말하면 남조선은 《12.12속군쿠데타》를 강행한 군부세력이 권력을 잡고 독재정치를 실시하던 때였다.

이러한 때에 공화국을 방문한다는것은 누구나 쉽게 결심하고 실행할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정주영선생은 단호히 북행길에 올랐다.

이렇게 시작된 평양길은 수차례로 이어졌으며 그의 인생에서 새로운 전환점으로 되었다.

1998년 6월 수백마리의 소떼를 몰고 관문점을 넘으며 공화국의 해당 일군들과 금강산개발문제를 포함한 북남경제합작문제들을 합의하였다.

그해 10월에는 아들 정몽헌 등과 함께 평양을 방문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뵙고 기념사진촬영을 하는 영광까지 지니었다.

그 때 정주영선생은 《북에 고향을 둔 저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중대제안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하여 남조선당국이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부터 중단하는 정책중지단을 내릴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핵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도 호상 취해나갈것을 제안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이 중대제안

산관광과 류경정주영체육관을 더더욱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에 이바지한 기업가로, 북남경제협력의 개척자로 겨레의 마음속에, 력사의 갈피마다에 영원히 새겨져있다.

정주영선생의 지난 행적을 더듬어보노라면 무슨일이든 지 첫시시시 중요하다는것을 다시금 느낄수 있다.

만일 그때 선생이 북행길에 오를 결심을 하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를 그저 돈 많은 재벌들중의 한사람으로나 알았을것이다.

하지만 정주영선생이 북행길에 오름으로써 그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하기에 남조선인들은 위대한

화해와 통일의 초석을 놓는 력사적소명을 다한것》, 《북남관계가 개선되면 대북경제협력사업은 큰 효자노릇을 할것》이라고 하면서 북남협력사업을 계속할 결심을 피력하였다.

정주영선생이 것처럼 바란던 꿈과 겨레의 소망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거대한 통일애국투쟁의 길에서 반드시 현실로 꽃피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류경정주영체육관건설공사의 첫 삽을 뜨는 정주영선생(왼쪽에서 두번째)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치료봉사기 - 문수기능회복원을 찾아서 -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의 문수지역에 또 하나의 치료봉사기지가 훌륭히 일떠섰다.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자랑하며 솟아난 문수기능회복원에는 현대적인 의료설비들과 신기술, 심장기능회복치료, 각종 물리치료, 외과치료를 할수 있는 치료실들과 입원실들을 비롯하여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어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문수기능회복원의 중앙홀에 들어서면 구장홀을 방불케 하는 황홀경에 누구나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하늘의 별무리가 통째로 내려앉은듯 빛을 뿌리는 천정의 조명장식들, 율기나는 대리석과 라

일로 색조화를 이룬 기둥들, 은근한 색깔의 마감재들로 특색있게 부각장식을 한 바닥, 복도와 방을 경계짓는 대형유리칸막이벽들과 출입문들... 실로 그 어디를 돌아보아도 모든것이 완벽하고 훌륭하여 감탄을 자아낸다. 그뿐이 아니다. 이곳에는 환자들의 기능회복치료를 위한 모든 조건들이 그쯘하게 갖추어져있다. 1층에는 접수와 약국, 기제상점, 보조기구제작실, 신경기능회복치료과, 물리치료과, 정형외과기능회복치료과, CT실, 렌트겐실이 있고 2층에는 입원실과 대동강체육, 면담실, 심장기능회복치료과, 물리치료과, 고려치료과, 검사실

이 있다. 특히 2층에는 정면에 액정TV를 설치한 위성전 건강의홀이 있다. 세계적인 아동기능장애자들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맞게 아동치료실도 아이들의 심리에 맞게 잘 꾸려져있다. 1만 7 500여㎡의 부지면적에 150여종의 각종 현대적인 의료설비들을 갖춘 문수기능회복원은 인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현명한 명도에 의하여 솟아난 인민사랑의 창조물이다. 세계에는 문명을 자랑하며 발전된 기능회복치료기관을 가지고있는 나라들이 많지만

경도자의 이렇듯 크나큰 사랑과 세심한 보살핌속에 일떠선 치료봉사기지는 그 어디에도 없다.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사랑과 헌신의 로고가 있어 문수기능회복원은 모든 치료환경과 조건, 의료설비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갖춘 종합적인 치료봉사기지로 훌륭하게 일떠설수 있었다. 하기에 궁궐같은 문수기능회복원에서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마음껏 의료봉사를 받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속진정을 터치고있다. 정말 우리 세상은 인민을 위한 좋은 세상이라고. 본사기자 최대성



세계적으로 장애자들의 기능회복치료를 위한 관심이 날이 높아지고있다. 몸이 불편한 장애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치료활동을 도모하는것은 문명국의 정교의 하나이다. 문수기능회복원에는 다목적렌트겐을 비롯하여 150여종의 최신식치료설비들과 50여개의 치료실들을 비롯하여 장애자들을 위한 현대적인 치료설비들이 그쯘하게 갖추어져있다. 그중 몇가지만을 놓고보자. - 신체현수식운동치료기구 치료와 운동, 신체단련을 목적으로 하는 이 치료기구는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있다. 방법사의 방조밀에 능동운동과 피동운동을 배합하여 끈의 세기를 조절하면서 환자의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

특색있는 치료설비들과 치료실들

운동을 윤택히 할수 있게 해주는 이 치료기구는 그 값이 너무도 엄청나 다른 나라들에서는 돈많은 사람들이나 리용하고있다. 그러나 문수기능회복원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돈 한푼 내지 않고 현대적인 치료설비를 마음껏 리용하면서 치료받고있다. - 일상생활동작치료실 가정이라는 말만 들어도 사람들은 마스함과 안정감을 느낀다. 환자들을 하루빨리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일상생활 동작치료실에서는 항상 가정적분위기에 있고싶어하는 환자의 심리상태에 맞게 그에 어울리는 가구들을 갖추어놓고 환자들이 항상 안정감을 가지고 아늑한 환경속

에서 치료에 전념할수 있게 하고있다. 여기에는 TV화면을 보면서 체육운동을 할수 있게 수감장치가 되어있는 환자용회오라키구와 주방도구들이 갖추어져있다. 이곳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자기가 가정에 있는듯 한 감을 느끼게 된다. 종합적인 환자용회오라키구를 리용하여 정구를 치고 보링을 하면서 운동기능을 높이기도 하고 주방도구들을 직접 리용해 보는 방법으로 운동기능을 회복시키는 일상생활동작 치료실은 환자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 물리치료실 물리치료는 심장과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과 관절

가동술, 균형 및 보행훈련, 지구력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수기능회복원에 있는 물리치료실은 방법사가 환자와 함께 수영복을 입고 물속에 들어가 여러가지 동작을 과학적으로 방조하면서 치료를 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물리치료실에는 환자가 삼륜차에 앉은 상태에서 물속에서 왔다갔다하거나 물속으로 들어갔다나왔다하면서 치료 받는 수직보잉승강기와 기중기팔식승강기, 환자에게 공기식으로 물을 좌주면서 자극효과를 높여 치료할수 있는 개인용치료욕등 치료기구들, 의사가 물속에서 치료받는 환자를 관찰할수 있는 감시대도 있다.

이러한 물치료를 통하여 환자의 상태에 맞게 어떤 치료대책을 세워야 하는가를 알수 있다고 한다. 이밖에 문수기능회복원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아동치료실과 사륜차에 앉아 물구를 할수 있게 꾸려진 운동실을 비롯하여 장애자들을 위한 갖가지 치료기구들이 갖추어져 환자치료에 리용되고 있다. 문수기능회복원을 돌아본 외국사람들이 어느것이냐 21세기의 현대적설비들이라고 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 서방의 선진이 완전한 치료받지 못했다는것을 깨달았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사회주의문명강국을 건설하고계신다가에 무슨 말인가 했는데 조선에 와서 직접 보니 리해가 된다.》고 감탄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본사기자 고영숙

신기한 병 치료

☆ 나는 2년전에 갑자기 경추가 골절되면서 전신 이마비되었었다. 1차치료로 어느 정도 회복은 되었으나 운동기능이 심히 약화되어 여기 문수기능회복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방법사의 방조 밀에 팔, 다리, 관절, 손운동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효과가 두

릿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몸에서 열이 나고 힘이 뻘뻘해서 다른 사람의 방조를 받아야만 수행할수 있던 간단한 동작들이 자체로 할수 있을 정도로 이르렀다. 신발도 남의 방조를 받아야만 신던것을 치료로 시작한지 1주일일이 되어서부터는 혼자서 신을수 있게 되었다.

나 자신도 막 신기할 정도이다. 이제 방법사의 방조가 없이도 여러가지 운동기재들을 자체로 리용하면서 치료훈련을 하고 있다. 이런 치료를 2달 정도만 더 하면 자체로 자전거까지 탈수 있을것 같다. 평양시 대동강구역 통라 2동 조달진(51살)

내가 누리는 특혜

☆ 나는 뇌출혈로 반신이 마비되어 일상생활에서 많은 장애를 받고있었다. 지난해 12월 문수기능회복원이 개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에 와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치료설비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난생처음 보는 최첨단설비들이 나를 기다리고있었다. 친절하

고 하는것 같다.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적으로 보장해주는 우리 나라가 아니었다라면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하루빨리 건강한 몸으로 조국의 통일발전에 이바지하고싶은 열망뿐이다. 평양시 보통강구역 붉은 거리1동 박준환(54살)

의사선생님들과 방법사들이 성의를 다하여 나의 운동기능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다 난다. 평범한 노동자에 불과한 내가 술한 《시중군》들의 방조를 받는 호사를 누리게 되었으니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이런것을 천복, 만복이

문수기능회복원의 입원실들에 들어서면 제일먼저 눈에 뜨이는것이 환자침대머리맡에 있는 간호원구급호출기, 다기능환자감시기 등 여러가지 기구들이다. 간호원구급호출기로는 환자들이 급할 때 간호원을 찾을수도 있고 다기능환자감시기로는 의사가 자기 방에 앉아서도 환자의 맥박과 혈압을 비롯한 일상상태를 수시로 감시할수 있다.

우리는 입원실에서 평양시 대성구역 룡복동에서 온 72살, 73살 나는 노인내외를 만나보았다. 심장병과 관절염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할머니와 뇌혈전후유증으로 언어장애가 온 할아버지였다. 그들은 《처음 병원에 입원하러 왔을 때 깜짝 놀랐다가 기분이 맞고 나서 해사였다. 병원이 아니라 별세상에 온것 같았다. 의사선생님들과 간호원들은 또 얼마나 친절한지, 이런 희한한 설비

들로 치료를 받으니 며칠되지 않았지만 벌써 효과가 나타나는데는 정말 기쁘다.》고 이야기 하였다. 문수기능회복원의 입원실 마다에 있는 베란다에 나서면 문수물놀이장의 전경이 한눈에 안겨온다. 여름철이면 베란다에서 야외물놀이를 하며 웃고 떠들 사람들을 보며 희열에 넘쳐있을 환자들의 모습을 그려보니 우리의 마음도 마냥 즐거웠다. 정녕 문수기능회복원이야말로 최신의료설비들로 환자들을 깨끗이 완치시켜줄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정화시켜주는 인민을 위한 사랑의 집이다. 본사기자

인민을 위한 사랑의 집

그런가하면 샤워실에는 몸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 샤워기밀에 의자가 설치되어 있다. 세면대앞에도 의자를 놓아주어 환자들이 다른 사람의 방조가 없이도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게 꾸려졌다.

TV와 랭동기를 비롯한 비품들도 구색에 맞게 갖추어져 있어 환자들이 좋아하고 있다. 우리는 입원실에서 평양시 대성구역 룡복동에서 온 72살, 73살 나는 노인내외를 만나보았다. 심장병과 관절염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할머니와 뇌혈전후유증으로 언어장애가 온 할아버지였다. 그들은 《처음 병원에 입원하러 왔을 때 깜짝 놀랐다가 기분이 맞고 나서 해사였다. 병원이 아니라 별세상에 온것 같았다. 의사선생님들과 간호원들은 또 얼마나 친절한지, 이런 희한한 설비

들로 치료를 받으니 며칠되지 않았지만 벌써 효과가 나타나는데는 정말 기쁘다.》고 이야기 하였다. 문수기능회복원의 입원실 마다에 있는 베란다에 나서면 문수물놀이장의 전경이 한눈에 안겨온다. 여름철이면 베란다에서 야외물놀이를 하며 웃고 떠들 사람들을 보며 희열에 넘쳐있을 환자들의 모습을 그려보니 우리의 마음도 마냥 즐거웠다. 정녕 문수기능회복원이야말로 최신의료설비들로 환자들을 깨끗이 완치시켜줄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정화시켜주는 인민을 위한 사랑의 집이다. 본사기자



문수기능회복원은 모든것이 선 편리성, 후 미학성의 원칙에서 꾸려져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문수기능회복원에서는 선천성기능장애와 로인성기능장애, 외상성장애 등 각종 기능장애환자들에 대한 회복치료를 전문적으로, 종합적으로 하고있다.

모든것이 편리하게. 중전을 방불케 하는 원형홀이며 매 복도마다 장애자들을 위해 설치된 감시카메라와 환자용복속잡이들, 환자용승강기, 환자용삼륜차 및 휴식장들, 과학적인 표준각도가 보장된 환자용경사계단, 입원실, 면회장, 간호원초소 등 그 어디를 보아도 모든것이 환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맞게 꾸려졌다. 문수기능회복원에서 특색있는것은 어린 환자들을 위한 방이다. 이곳에 있는 지능놀이감들

기제상점들에서는 운동에 필요한 기제들을 구입하여 리용할수 있어 치료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해주고있다. 문수기능회복원은 인민들이 고마운 제도의 덕을 깨부르도록 느끼기 위한 몸으로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해 나갈수 있게 하고있다. 본사기자 박원평



한눈으로 보는 조선우표의 생생한 역사

* 조선 우표 박물관에서 *



우리 나라에서 처음 발행된 《문위우표》

우표의 역사를 논할 때면 흔히 영국의 유명한 교역자였던 로렌드 힐을 꼽곤 한다. 《근대우편의 창시자》, 《근대우편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그가 낳은 우편제도를 개혁하고 우편료금전납제를 실시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후 1840년 5월 1일 첫 우표가 세상에 나왔던 것이다.

오늘날 우표는 단순히 우편물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유가증권으로서만이 아니라 해당 나라와 민족의 주권을 상징하고 발전 역사를 담고있으며, 수집품으로서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있는 것으로 하여 세계적판도에서 널리 보급되고있다. 1996년까지 우표를 발행

한 나라와 지역이 244개, 발행종수가 월종 약 3 000여종에 달한 사실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

조선우표는 언제부터 발행되었는가? 어떤 발전형태를 거쳐왔는가?

평양의 고려호텔에는 정면에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가 조선우표를 들고 세계를 향하여 날으는 모습을 형상한 조각품이 있는 조선우표박물관이 위치하고있다.

2012년 4월에 개관된 이곳에는 공화국의 발전면모를 보여주는 우표와 우편부두, 업무들이 정지, 군사, 경제, 문화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전시되어있다.

흥미있는것은 이곳에서 1884년 11월 8일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발행된 《문위우표》(당시 화폐단위가 《문》이라는에서 붙여진 이

들이 기쁨과 환희에 넘쳐 부러던 태극보통우표, 1900년 1월~1901년 5월에 화가 지창환이 도안한 리화보통우표, 1902년 10월에 발행된 고종황제 즉위 40년기념우표들을 볼수 있는것이다.

하지만 이곳을 돌아볼수록 사람들은 진정한 인민적우표의 발행은 나라가 해방된 후부터 비로소 시작되었음을 깨부르 느끼게 된다. 1946년 3월 12일 해방된 조선의 우편사업 개시를 기념하여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축복속에 2종의 조선우표 《무궁화》와 《삼선암》이 발행된 때로부터 조선우표는 자랑스런 발전력사를 수놓아왔던 것이다.

조선우표는 주제조선의 상징물의 하나이며 역사의 증언자이다.

이곳에 전시된 조선우표들에는 주인된 새명에서 인민

들이 기쁨과 환희에 넘쳐 부러던 태극보통우표, 1900년 1월~1901년 5월에 화가 지창환이 도안한 리화보통우표, 1902년 10월에 발행된 고종황제 즉위 40년기념우표들을 볼수 있는것이다.

하지만 이곳을 돌아볼수록 사람들은 진정한 인민적우표의 발행은 나라가 해방된 후부터 비로소 시작되었음을 깨부르 느끼게 된다. 1946년 3월 12일 해방된 조선의 우편사업 개시를 기념하여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축복속에 2종의 조선우표 《무궁화》와 《삼선암》이 발행된 때로부터 조선우표는 자랑스런 발전력사를 수놓아왔던 것이다.

조선우표는 주제조선의 상징물의 하나이며 역사의 증언자이다.

이곳에 전시된 조선우표들에는 주인된 새명에서 인민

김일성방송대학 교무부에서 일립니다

김일성방송대학에서는 주제103(2014)년 설명절에 즈음하여 기념특강을 다음과 같이 조직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의제목: 인민의 리상과 념원이 현실로 꽃피어나는 사회주의 이 조선

강의시간: 1강의

강의날자: 주제103(2014)년 1월 30일

홈페이지주소: <http://www.ournation-school.com>

전자우편주소(E-mail): schoolmanager@silibank.com

청강생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31일은 설명절이다. 설명절은 한해에 첫번째로 맞는 명절로서 새해를 축하하여 가장 즐거웠는 명절의 하나이다.

설은 옛 기록들에 의하면 《세수》, 《년수》, 《원단》, 《원일》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모두 한해의 첫날이라는 뜻이다.

설은 복잡다단한 생활로 가득찬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희망을 안고 맞는 새해 첫 명절인것만큼 우리 선조들은 설날을 앞두고 명절맞이 준비를 착실히 하였다.

설날이 가까이 오면 우선 노인들은 식구들의 설움(설빔 또는 세장)을 마련하였다.

부유한 집에서는 새 천으로 모든 식구들이 입을 옷을 다 짓거나 또는 남정들이나 아이들의 옷만을 지었다. 여러벌의 새 옷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설옷으로 입었고

우리 민족의 설맞이 준비 풍습

설날에도 갈아입을 새 옷이 없는 집에서는 입던 옷이라도 빨아서 고쳐짓거나 깨끗이 손질하여 입었다.

다음으로 설을 깨끗한 환경에서 쇠기 위하여 집안밖을 청소하고 손질도 하였다.

집안밖을 가려내는것은 목은 먼지와 때를 지난해와 더불어 시원스럽게 털어버리고 청신한 기분으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도 좋은것이였다.

설맞이준비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설음식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옛날부터 설에 떡을 만들어 먹는 풍습이 있었다. 설대목에 이르러면 설맞이떡을 만들기 위하여 떡방아를 찧고 가루도 냈으며 떡을 빻어 삶거나 찌기도 하였다. 지집도 지지고 고기도 볶았다.

우리 선조들은 또한 설날그믐날에 묵은해의 빛을 깨끗이 청산하거나 새해에는

체육발전에 이바지할 복합올리코펙트드 개발

최근 경공업과학기술연구소의 과학자들이 복합올리코펙트드를 자기 식으로 개발한데 이어 그 생산을 공업화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 놓았다.

펙트드는 인체에서 함암, 비만방지, 칼슘보충 등 중요한 치료기능을 나타내는 생리활성물질로서 1980년대 이후부터 세계적인 초점을 모으고있는 물질이다.

특히 이 물질을 응용하여 개발한 많은 식품과 음료들이 체육인들과 금메달사이의 인연을 더 가깝게 해주면서 부터 이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있다.

이전에 경공업과학기술연구소의 과학자들이 개발한 것이 페트드중에서도 그 이용범위가 가장 넓은 복합올리코펙트드이다. 이것이 개발됨으로써 공화국에서는 체육인식품과 음료생산을 다량적으로,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

과학자들의 개발목표는 처음부터 국산화였다. 사실 다른 나라의 기술을 본따면 개발은 쉽게 할수 있어도 국내에서 공업화하면 여러가지 난문제들이 있어 개발을 위한 개발로 끝나게 된다.

복합올리코펙트드의 개발이 이처럼 환영받는것은 바로 국내실정과 환경에서 공업화를 할수 있기때문이다.

이전에 과학자들은 자기들이 개발한 복합올리코펙트드를 리용하여 복합올리코펙트드중합염산염과 음료를 만들어 유술, 레스리, 권투, 럭비, 축구, 속도빙상, 마라톤선수들에게 적용해보았는데 선수들의 피로회복과 체중조절, 근육재생을 촉진하는데서 좋은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제1차 전국체육과학기술성과전시회와 국가과학원 과학연구성과전시회에서 이 제품은 1등으로 평가되었다.

이곳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에 복합올리코펙트드생산의 공업화를 기어이 실현하기 위하여 지혜와 정열을 바쳐가고있다.

영양식료품을 물에 풀어 마시려면

적지 않은 사람들은 가루 우유, 꿀 등 영양식료품을 끓는 물에 풀어 마신다. 사실 이렇게 하는것은 비과학적이다.

실험한데 의하면 이런 영양식료품의 주성분인 빠다, 포도당 등은 80°C에 이르러

옛날 어느 산골에 아버지

와 아들이 살고있었다. 겨울이 되자 그들부자는 눈 때문에 길이 막혀 마실도 못가고 종일 집안에 붙박혀있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작스런 강에 아들이 아버지보고 웃음을 하고자 하였다. 아버지는 단마디로 거절하였다. 한것은 아들녀석과 마주앉아 웃음을 한다는 것이 별스러웠고 또 웃음이라는것이 별로 재미가 있어보이지 않았기때문이었다.

그러던 아들이 하도 귀찮게 조르는 바람에 아버지는 마지 못해 웃음을 마주하게 되었다.

처음 아버지는 한두판은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였다. 그런데 몇판 지나서 부터는 이기면 이긴 재미에 한편 더, 지면 아쉬운 생각이 한편 더 하다하니 해가는

타박상에 찬물찜질

타박상을 당한후 곧 찬물찜질을 하면 아픔이 잘 멎고 부은것도 인차 내린다.

근육이 외부적타격을 받으면 모세혈관에서 피가 나오거나 타박받은 부위에 어혈이 생겨서 붓고 아프며 잘 움직일수 없게 된다. 이때 찬물로 찜질하면 피졸이 수축되면서 피나오는것이 멎고 어혈이 없어지면서 부은것이

2013년 국제탁구선수권대회

지난 1월 11일 아랍주장국련방의 두바이에서 진행된 2013년 국제탁구선수권대회 명수상 수여식에서 공화국의 김혁봉선수에게 2013년 국제탁구선수권대회 남자탁구명수상, 김정선수에게 2013년 국제탁구선수권대회 여자탁구명수상이 수여되었다.

이들과 함께 세계 여러 나라의 남자선수 2명, 여자선수 2명이 각각 명수상을 수여받았다.

김혁봉, 김정선수들은 지난해에 진행된 국제탁구선수권 제52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개별종목)에서 우승하여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떨치었다.

높은 기술로 경기를 대담하게 하여 단연 세계패권을 쥔 이들의 경기성과를 두고 《세계탁구력사에 특기할 사변》, 《조선선수들의 탁구정신을 배우고싶다》라는 경탄의 목소리들이 끊이지 울려나왔다.

순결한 마음 (9)

글 주 광 혁, 그림 김 운 일

자신이 만들어준 출산의 고통을 힘겨움에 밀어내며 첫새끼가 나오자 《평화》는 물고있던 내 손을 놓아주었다.

그제서야 나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별결계 부어오른 상처자리로 새어나온 피가 어느덧 엉겨붙었고 까맣게 잊고 있던 아픔이 가슴을 깨어무는듯 미끄러미 지나가듯 시작했다.

《언니. 빨리 닦아요.》 순애가 내민 더운물때 적신 수건을 받으려 고개를 들었던 나는 갑자기 달아오르던 손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을 느꼈다.

일랫 내려다본 나는 그만 가슴이 뭉클해졌다.

런민과 감사의 정이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던 《평화》가 붙어있는것처럼 달아오르던 내 손을 서늘한 혀바닥으로 살뜰히 훑아주고있었던것이다.

나는 《평화》에게 그대로 손을 맡길제 흐려지는 시야를 털어버리느라 머리를 흔들었다.

우리 선조들은 설에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어야 그 해에 풍년이 들고 건강하게 살수 있다고 하면서 설음식을 만드는 데 온갖 정성을 기울였다.

《설날의 떡》 설날음식 가운데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것은 떡이요. 옛 기록에 의하면 설음식으로는 시루떡(설기떡), 찰떡을 제일로 일러왔다.

설날에 먹는 시루떡(설기떡) 가운데서 이체를 던것은 찰떡가루에 김정공, 대추, 밤, 꿀 등을 버무리 쥘 떡이였다. 설명절떡가운데서 누구나 즐겨먹는것은 찰떡이

《약과와 강정, 수정과》 약과와 강정은 다같이 설날의 으뜸가는 설음식이였다. 약과란 이름은 약으로 쓰이는 꿀을 넣어 만든 《파일》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는데 아이들이 즐겨먹었다.

설날아침 늙은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어린이들로부터 세배를 받고 흔히 강정을 달레 선물로 주곤 하였다. 수정과는 설음식 가운데서 이체로 쓴 음료였다. 수정과는 시원하면서도 달고 향긋한 맛을 내는데 설음식으로서 특색이였다.



찰 떡, 떡 국, 수정과

고맙다, 《평화》야. 정말 용케도 견뎌주었구나. 저런, 너 어디서 배웠니. 새끼가 쌓여있던 막을 잘 찢는구나. 옳다. 그렇게 해, 이런 새끼가 첫 호흡도 하고 몸도 말리우게 활이주어 야지. 그렇지? 정말 잘하는구나. 그건 어쩌려고, 그건 태출이러는건데 네가 먹어야 해. 그걸 먹고 30분후면 또 다음 새끼가 나온다. 너처럼

있는 에미같은. 《평화》가 다섯마리의 새끼들을 다 낳아서야 강장이 풀린 인장방장이 허리춤의 수건을 뿜어 이마를 문지르며 하는 소리다.

《그 말도 틀리지는 않아요. 내겐 말이 없으니 《평화》가 내 《말》이 아닐까요?》

내가 한마디 하자 순애가 들개말았다.



《아니, 그럼 언니는 《평화》의 《어머니》. 야! 거기 참 멋진 말이예요.》 출산하는 《평화》와 함께 입술을 찡그리기도 하고 제 손을 꼭 쥐기도 하면서 휘둥그런 눈으로 새 생명기려어 나는 모습을 지켜보던 순애가 《절대불변》의 진리를

《아니, 그럼 언니는 《평화》의 《어머니》. 야! 거기 참 멋진 말이예요.》 출산하는 《평화》와 함께 입술을 찡그리기도 하고 제 손을 꼭 쥐기도 하면서 휘둥그런 눈으로 새 생명기려어 나는 모습을 지켜보던 순애가 《절대불변》의 진리를